

地域均衡開發과 農漁村發展 方向

趙 壹 鎬

(農林水産部 農漁村開發局長)

오늘 여러 先輩님들께서 農工學會의 뜻깊은 發表會를 가지신 자리에 本人에게 「地域均衡開發과 農漁村開發方向」에 대한 發表의 機會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水害復舊로 인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參與하여 주신 各道 農地課長任들과 農工學會가 우리 農業政策의 발전과 더불어 도움이 되는 이러한 協助體系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當面한 農漁村 문제의 해결에 큰 寄與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우리 農漁村問題를 보는 視覺의 설정을 다가오는 2000년대의 未來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眼目の 設定을 해야 된다는 인식아래 현재 政府에서 구상하고 있는 基本 構圖와 認識에 대해서 간략히 紹介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30년 동안 高速經濟成長을 이루어 온데에는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첫째, 人口過剩과 底生産力에 대처하여 生産性を 높일 수 있는 새로운 産業의 育成

둘째, 技術革新에 필요한 資本의 최대한 動員

셋째, 資本의 投資는 효과가 많이 나는 부분부터 우선 投入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개념아래 나라의 發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農業보다는 工業化 위주 成長 戰略을 강력히 推進하게 되었으며, 所要 投資 財源은 빈약한 內資 能力으로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양질의 海外 資本을 導入해서 조달하였고 投資效率性이 높은 부분에 集中되는 不均衡 集中投資 方式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過程에서 우리가 2次世界大戰이 끝난 이후에 開發 政策을 推進한 國家中에서 유일하게 成功한 큰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0世期 後半期의 貧窮 狀態를 脫皮하고 先進國으로 進入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國家로 世界的인 評價를 받게 되었습니다.

不均衡 成長, 貧富의 격차등 이러한 우리경제의 成長戰略을 다른 開發 途上國들이 推進해온 諸 政策體系, 社會的·政治的 努力의 成果를 同一線上에 놓고 評價한다면 우리가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成長戰略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 온 국민의 합의와 支持가 있었기 때문이며, 멕시코, 파키스탄, 알제틴등 부존자원, 技術, 인력측면에서 優越한 國家들보다 훨씬 앞선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先決課題는 이러한 不均衡 問題를 그동안 우리가 蓄積해온 成長의 餘力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福祉 社會를 建設하는데 필요한 國民的 合議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蓄積해온 經驗, 技術 및 資本을 土臺로 하여 성장 潛在力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균형 시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때라는 것입니다.

均衡化의 問題라는 것은 여러가지 視覺이 있으나 단순히 生産性이 없는 「나뉘먹기식」보다는 우리가 保有하고있는 潛在 成長力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根本的인 視覺아래 農漁村問題의 解決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農漁村 問題는 優先 地域的인 側面에 우리 農漁村地域이 가지고 있는 土地, 人

力 및 技術 등의 資源을 잘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農漁村지역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社會 전반적인 均衡 發展과도 긴밀한 關係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均衡發展 問題를 원만하게 이루어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課題로는

첫째, 地域間的 生産力 차이에서 연유하는 所得과 雇用の 不均衡을 解消하고

둘째, 農漁村에서의 教育與件 미비로 農漁民 자신이 장래의 발전가능성에 한 懷疑나,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農漁村地域을 떠나는 問題를 解決하며

셋째, 農漁村地域 經營與件이 落後되어 있는 農漁村에 대한 整備, 改善과 道路 交通 등의 生活與件을 갖추어 外部와 統合, 連結되도록 하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課題들이 解決되면 종국적으로 農漁村地域 住居環境이 改善되 住宅, 聚落, 上下水道 등 諸般 施設이 都市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쾌적한 環境으로 改善될 것입니다. 이는 解決되기에 앞서 政府次元에서 推進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凡國民的 次元에서 政府와 民間이 다같이 協力해야 할 課題인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1世紀를 향한 우리나라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農漁村의 生活 經濟權이 現在 가지고 있는 脆弱點을 어느만큼 우리가 成功的으로 補完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核心的인 課題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農漁村의 發展政策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에는 지금까지 成長戰略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고정과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效率第1主義」에서의 脫皮와 農漁村 問題의 解決을 既存의 單純한 農民漁業 問題로 局限하여 온 概念에서 벗어나, 過去와는 달리 高度産業, 國際化, 民主化 등의 社會氛圍氣에 符合되는 政策選擇이 不可避한 것을 收容해야 하는 轉換의 姿勢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農漁村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農水産物 價格을 輸入을 開放하지 않고 價格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式的 思考

는 현재 우리 經濟가 처한 立場을 이해 못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海外市場을 확보하고 去來先을 확보해 나가는 戰略이 불가피하다는 認識을 갖고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國際化 時代에 同參할 수 있는 姿勢를 갖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또한 物價 安全과 關聯하여 우리 農水産物의 價格支持 問題 또한 우리 農漁村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價格을 支持해야 된다고 하는 固定 觀念을 克服해야 하며, 이는 昨年에 고추과동 過程에서 충분히 經驗한 바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國際化되고 開放化되는 새로운 經濟體制에 對應하여 우리 農林水産業의 體質도 強化되고 다른 先進國들의 農業과 競爭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認識을 가지고 우리가 問題를 解決해 나감에 있어 그 地域 農漁家가 가지고 있는 實情에 알맞게 현실적인 土臺에 뿌리를 두어야 되리라고 보며, 이러한 過程에서 學界에 계시는 여러 先輩님과 우리 公職者들뿐 아니라 當事者인 農漁民들까지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問題解決의 方向에 대한 合議點을 挑出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視覺에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農漁村의 發展綜合對策의 基本構圖는

첫째, 農漁村問題 解決에 있어 사람으로서의 農漁村의 住民, 産業으로서의 農業과 다른 産業, 그리고 農漁村 地域의 生活 環境問題나 所得, 雇傭, 福祉問題 등을 한 體制內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空間속에서 우리 農漁家들이 가지고 있는 自力이나 資産, 勞動力 問題를 생각해 農漁家들에 대한 經營規模別 戰略을 推進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農林水産業에 轉業할 수 있는 農家를 選別 育成하고 兼業할 수 있는 農家를 두어 다른 産業으로 進出해서 더 좋은 機會가 될수 있는 農民들에게는 轉業機會를 提供하는 多樣한 政策을 提示하여 우리 農漁民들이 자기들의 希望아래 그런 政策을 選擇할 수 있게 하는 門戶를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간혹 이런 문제를提起하는 경우에 우리 農林漁業分野중 轉業對策 問題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면으로는 왜 農民에게 轉業의 機會를 주느냐 그 사람들에게 農事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方法이 아니냐는 非難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면으로는 農漁民 自身들에게 자기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機會가 提供된다는 觀點에서 就職의 機會를 갖는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農家の 資産이나 自力에 대한 基本的인 구조뿐만 아니라 年齡別에 대한 별도의 對策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年齡別로 본다면 우리 農漁村 人口가 점차 老齡化되고 婦女化 되는 경향이 있으며, 50代 이상이 33%이상이 되고 있으며, 農村의 장기적인 發展을 위해서는 現在의 靑壯年들에게 앞으로 20~30년동안 農漁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從事해도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確信을 주어야 하며, 農林水産業에의 專業, 다른 職種과의 兼業 또는 轉業하는 등의 새로운 選擇의 機會를 늘려 주는 한편 그분들의 子女教育 問題를 解決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老齡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當面하고 있는 問題가 子女教育 問題, 負債負擔 輕減問題 그리고 老後生活 安定에 대한 問題등이며, 이에 대하여는 子女教育支援, 負債輕減및 年金制度 發展등의 支援策이 갖추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셋째, 農漁村에 있어서 生活環境 改善하고 快適한 定住生活 體系를 集團의으로 開發해 주는 努力이 必要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事業으로 마을길 넓히기, 담장고치기등의 小規模 마을整備事業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 農漁村에도 農工이 並存하는 地域 經濟圈으로 發展할 수 있고 또 農林漁業이 보다 經濟的인 產業으로 跳躍할 수 있는 基本的인 生活 與件이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農漁村地域에 있어서 새로운 體系로 營農活動이 維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土地制度의 補完發展이 必要한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賃貸借을 活性化하고 漸進的으로 不在地主 農地에 대하여 市場매카니즘을 活用해서 實耕作 農民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시행하는 觀點에서 現 農地制度를 보완시켜 나가는 한편 農漁村地域의 空間을 좀더 효율적으로 活用하고 保存할 수 있는 土地空間 管理 概念이 農漁村地域에 導入되도록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금까지 食糧增産이라는 단일 목표아래 묶어둔 農地保全制度를 彈力的으로 調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農林水産業에 대하여 國際化時代에 對外競爭力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積極的이고 多角的인 對策을 講究해야 되겠습니다. 現在 劣惡한 條件에 처해 있는 國內 農水産 部門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輸出作木의 開發普及, 農水産物 加工食品開發, 技術革新 등을 통하여 단순한 내수산업에 對外競爭力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러한 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政策의 폭이나 選擇의 과정이 過去와 같이 閉鎖的이거나 또는 硬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選別的이 되고 또 自律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中央政府에서는 읍손에 대한 基本體系를 마련하고 그런 체제아래에서 各 地方自治團體나 農漁民團體등이 나서서 그 地域에 맞는 政策 프로그램을 中央政府가 提示한 여러가지 政策 아래서 選擇하여 自律的으로 開發해 나가는 體系가 되어야 現實的으로 상당한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的인 생각을 전제하여 우리 農漁村 現場의 問題를 말하자면 우선 農漁村에 있는 사람과 땅과 물이라는 基本的인 3가지 資源이 있다고 할때

첫째, 農漁村 人力問題에 있어서 주로 農水産業 分野에서 우리가 支援을 많이 해왔는데 農漁村에 남는 사람들이 農水産業 經營을 하고 좀더 나은 양질의 인력들은 工業分野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난 30~40年 동안 우리가 發展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逆으로 좀더 競爭力있고 高度로 技術化되는 農林漁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農漁村에 있는 人力중에서 優秀하고 좀더 자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農業分野가 選別해야 精銳化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에 알맞게 農漁村地域에도 農漁業 뿐만이 아닌 다른 産業을 導入해서 農漁村地域의 産業이 좀더 多樣化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利用도 農地로서 保存 發展시킬 수 있는 優良한 農地들은 集中的으로 投資해서 農業 資産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農業에 從事하는 좀더 高級 技術化되는 農漁民들에게 支援을 集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을 내어주어서 農村에서 다른 農漁民들이 所得增大 活動에 도움이 된다면 땅을 활요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물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作物 生産을 支援하기 위한데 重點을 두어 왔습니다만 그 차원 보다는 農民들이 便利하고 安心하면서 農事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經營 安全을 위한 물 供給 體系를 갖추는 한편 農漁村地域內에 물자원을 보다 合理的으로 관리하여 生活用水나 工業用水에도 活用할 수 있게 하는 概念을 定立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農業用水가 아닌 農漁村用水로서의 概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農漁村에 있어서 사람의 問題나, 땅의 問題나, 물이 問題가 農漁村地域 空間을 보다더 잘살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의 農林水産業을 競爭力있게 強化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調和되게 活用될 수 있도록 調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리하여 農漁村 生活圈에 대해서 道路라든가 上下水道라든가 住居 聚落 教育文化 같은 生活 基盤施設을 같이 가꾸어주는 問題가 自然的으로 같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前提로 우리가 일을 推進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들이 解決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왕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상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리 農漁村 問題라는 것이 本質적으로 단칼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實現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저희로서도 가장 어려운 問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차를놓고 볼때 예컨대 上下水道 문제나 農業用水開發 問題등을 본다하더라도 사실상 한가지의 問題 解決이 農漁村 問題에서 보면 대개 10년 내지 20년 程度를 꾸준히 밀고나가야 成果가 있을 것입니다. 農業用水도 처음 시작할때는 大單位綜合開發事業이라고 地下水開發事業이 상당한 挑戰도 받았고 非難도 많이 받았다고 記憶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基本的인 概念아래 問題를 補完發展시켜온 結果 저희가 68年度 후반기부터 70年初를 거쳐서 概念이 確立하고 現在까지 밀고온 결과 오늘의 우리 農業用水開發 體制나 問題가 解決되어 온 것입니다.

또 新品種 開發問題도 마찬가지로 過程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長期적으로 볼때 이런 課題를 해결하고 그런 方向으로 調整해야 되는것이 不可避하고 또 그것이 타당할 경우 長期目標을 設定해 놓고 꾸준히 노력을 하여 그 目標에 대한 成果가 10년이든 20년이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基本的으로 重要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基本的인 생각아래에서 所得을 어떻게 올려 주겠느냐 하는 問題가 첫번째 課題가 되겠습니다. 所得을 올려 줄수 있는 問題는 첫째로는 農業分野로서 農水産物의 市場 需要가 생기고 農業自體에 대한 費用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農漁民들에게 所得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農漁民 所得을 決定하는 最上位의 마지막에 후룬턴하는 것이 農林水産物에 대한 總需要가 되겠습니다.

總需要가 決定되고 中間 段階가 固定된 제일 끝에서는 몇사람이 나누어 먹느냐가 問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重要的 것은 總需要自體를 늘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所得이 어느정도 오르고 人口增加率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國內市場에 있어서 農水産物에 대한 總消費支出은 아주 安定되게 됩니다. 예컨대 칼로리 배이스를 보더라도 1인당 칼로리가 2,000칼로리에 대해서 2,500칼로리대로 갈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 갔는데 2,500칼로리대로 부터는 2,500, 2,560등 이런 水準으로 많이 오르기 보다는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를 逆으로 한다면 한사람당 攝取하는 農水産物의 量이나 그것을 사기 위하여 支拂하는 돈은 별로 變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豫定된 農林水産分野로서의 所得은 상당히 定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總收入의 프런티어를 깨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市場에서 輸出할 수 있는 것도 나와야 하고 國內에서 可及的이면 國內 農産物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國內 農産物을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愛國心에 호소하는 그런 運動도 重要하겠습시다마는 보다 長期的으로는 우리 農林水産物의 自體 品質과 기호선을 살려 農林水産物 自體가 우리 國內 消費者에게 어필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現在 理想的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나 隣近의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나라도 市場 開放化 段階에서 그런 勞力을 集中한 바 있고 또 日本에 있어서 그런 勞力이 집중되고 그것이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基本的 생각에서 모든 것이 決定되고 가정할 경우 팔 수 있는 農水産物의 市場이 100억원이면 이 100억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規模化되고 專業化된 農家들로 育成해 나가야 하므로 專業農에 대한 農地問題 解決, 技術的인 問題 解決, 價格問題 解決, 市場問題 解決과 生産活動을 위한 與件을 갖추어

주는 勞力을 우리가 集中的으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農漁村에서 小農이나 一般 勞動力이 있으나 農業資源이 적은 農家들에게는 좀더 技術 集約的인 고부가가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이들이 가진 既存 負債輕減을 비롯하여 子女 教育費 등이 支援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農漁村地域에서 대해 새로운 就業機會를 늘려서 農工地區를 導入한다든가 觀光農業을 한다든가 임가공 事業擴大 등 여러가지 새로운 일자리를 農漁村地域에 造成해서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對策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基本的인 政策이 꾸려나가는데 選別的인 政策은 어느면에서 보면 오히려 例外的인 것이 되겠다고 基本的으로는 現在의 農業機械化라든가 基盤造成등 여러가지의 努力이 같이 並行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農漁村地域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려야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解決하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事實上 農漁村地域에서 조차도 地域別로 본다고하더라도 이미 郡單位以下에는 全體 人口中 31%가 居住하고 있는 그 就業 人口中에서 60% 정도는 현제도 써어비스업이라든가 다른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農漁村 地域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供給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問題가 提起됩니다. 첫째로는 農漁村地域에서 工業이나 다른 써어비스업의 活動이 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問題가 있고 그 다음에는 農漁民들의 이러한 活動을 할 수 있는 技術이나 어떤 自負心을 갖게 하는 對策을 兩面에서 밀어나간다면 그런 問題를 점진적으로 解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工業用地的 配分, 工業技術 訓練 또는 農林水産物의 加工品の 生産등에 대한 問題解決에 重點을 두어 推進을 해나가자 합니다.

특히 이런 問題는 그 동안에는 中央政府가

中心이 되어서 推進을 해온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地方自治團體에 맡겨서 그 地域 與件에 맞게 그렇게 推進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도록 하는 構想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問題가 解決되고나면 우리의 農漁村에 있어서의 土地 空間이 좀더 効果적으로 活用될 수 있는 幅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日本은 69年, 臺灣 73年頃에 이미 이를 導入했습니다마는 우리는 現在의 農地保存利用 體制를 補完 發展시켜서 保全할 地域은 완전히 집중 관리하는 한편 좀더 活用할 수 있는 土地는 開放해서 效率높은 土地利用 方式을 採擇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問題를 實踐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어떠한 農地가 보다더 가치가 있어서 保存해야 할것이나 어느 規模를 가져야 될것이나 그러한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問題는 우리 學界에 있어서도 많이 支援을 해주시고 좋은 基準을 提示하면 저희가 施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定住生活圈 開發 問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忠北地域 産業發展에도 상당히 努力한 바 있습니다마는 中部 高速道路가 난 후 首都圈에 대한 工場立地에 대한 制限을 하여 忠北地域에 많은 工場들이 드러오게 했습니다.

아직은 初期 現象이 되겠습니까마는 예컨대 이런 現象이 있습니다.

진천에서 工場을 設立하여 月 15~20萬원을 준다는 이러한 職場이 생기면 진천에 있는 工場에서 돈을 벌면 이제 淸州에 나와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生活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시간이 경과 되면 아예 淸州로 移徙 나오고, 또 技術을 익히면 그런 地方工場에서 오히려 大都市 工場으로 가는 그런 問題가 있습니다.

이런 問題는 비단 農漁民들이 볼때 그런 職場이 農事를 짓다가 工場에 다니는 것이 自尊心이 허락치 않아서 하는 차원에서 보다는 오

히려 農漁村地域 自體 生活 環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問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農漁村地域에 있어서 취락이나 다른 生活 便益에 대한 近接性を 提高해 주는 努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近接성은 우리 交通 手段의 발전에 의해 이룰수 있으므로 道路網 體系등의 與件들을 갖추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特徵적인 것이 있는데 통신망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先進國 水準에 도달하여 어느 산골에 있어서든지 國際電話가 가능합니다. 通信網에 있어서 다른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메카니즘을 우리는 제일 먼저 해놓은데 대하여 道路 및 交通網은 그보다 덜되어 있고, 그 다음이 聚落 環境이며, 가장 끝으로는 住宅施設 自體가 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問題는 이런 住居와 聚落의 問題, 交通의 問題 이런 問題들을 段階적으로 解決해 나가면서 그 地域의 生活圈이 都市와 대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開發接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볼 때 우리의 定住圈 生活開發 또는 수준높은 생활편의시설은 大的인 投資 所要額 때문에 빠리는 해낼수 없지만 現在의 中小都市에서는 生活與件이 갖추어진 만큼 우리 農漁村 地域도 한 10年後에는 面所在地를 中心으로한 主要 部落도 現在 中小都市가 갖춘 生活 水準까지는 만들어 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 部落이 郡 所在地가 되었거나, 아니면 5일시장 정도의 生活中心圈까지는 自動車로 15分~20分내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 中心地域에는 슈퍼마켓도 있고, 劇場, 工場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附隨的인 生活便益 施設과 함께 雇傭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提供되므로 1段階로 자기 部落에서 市場까지 나가는 問題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部落에 들어가면 現在 우리 部落들이 가지고 있는 聚落의 要件이 상당한 變動狀態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聚落들이 완전하게 되기전에는 그 内部의 안길 整理, 가로등 事業,

住宅内部에 있어서의 부엌改良, 沐浴湯 등의 問題를 解決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段階로서 10年内 2000年代까지는 대개의 農漁村의 地域들이 現在의 中小都市 水準程度까지 便益을 갖출 수 있게 하고 産業施設과 近接性을 갖추어 주는 作業을 하고 그 다음 段階의 한 20年은 2000年代에 가서 처음 20~30年은 聚落 自體가 農漁村에 알맞는 새로운 再編成에 들어가게 하면 20~30年내에 결국 우리나라 農漁村도 現在 우리가 가보는 日本의 農漁村이나 구라파에 가보는 農漁村이나 같은 모습으로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간단하게 象徴으로 表現한다면 우리들 實務者와 같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앞으로 10年以内는 現在 中小都市 水準으로 갖추는 것은 돈이 없고 또 여러가지 제반 與件이 어려우나 2000年代를 들어가서 20~30年은 農漁村地域 部落에도 交通 信號燈이 있는 農漁村을 만들수 있어 2030년에 가면 우리 農漁村이 經濟圈에 있어서나 生活圈에 있어서 現在의 日本이나 구라파 水準과 비등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展望하며, 또 우리 經濟力과 비추어 볼때 그런것이 可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基本的인 일을 現在 設計 하고 거기에 대한 基礎調査를 來年度에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法制를 今年 2月 臨時國會에서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基本 問題意識과 이에 대한 支援이 합쳐져서 우리가 體系的 努力을 해나간다면 短期的으로는 問題 解決이 어렵기는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10年 내지 20年 꾸준히 努力해 나간다면 우리 農漁村 問題解決과 함께 우리나라 地域의 均衡開發이 이루어져서 社會的으로도 統合된 한단계 더 歷史的으로 跳躍할 수 있는 契機가 되지 않느냐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專門家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農漁村地域에 있어

서 水資源의 利用이나 活用이 現在까지는 農作物을 키우는데 中心을 두고 해왔습니다. 現在는 農作物을 키우는데 中心을 두는것이 重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重要的 것을 더해서 生活用水 問題, 물에 淸리티 즉 水質汚染을 管理하는 問題, 물자체를 보다 費用節減의으로 效率的으로 管理하는 技術과 體制問題등 여러 가지 山積한 問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물을 多目的으로 活用하는 한편 더 코스트를 낮게, 더 질이 좋게 活用할수 있는 體制를 우리가 發展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農漁村이 汚染의 根源이 되는 것은 結局은 住居施設이 中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이 産業施設, 축산시설 같은 것이 될것이고 다음에 畜産施設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과 調和시켜 물관리 問題도 좀더 體系화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農漁村發展綜合對策을 發表했고 그것을 實踐하는 對策들을 現在 推進중 있습니다.

다만 이런 對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實務的으로 관련 部處나 다른機關들과 調整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努力을 最大한 기울여서 이런 問題들이 잘 解決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農漁村에 대한 投資도 擴大하고 이러한 契機를 통해서 地方自治團體의 역량을 늘리고, 載量權도 부여하여 우리 農漁村發展이 보다 調和있고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問題에 대한 그 行政에 있어서 政策 樹立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현실에 木이고, 두번째는 各種 理解關係와 얼키는 問題가 있고, 세번째는 전문적이고 技術에 있어서도 깊고 넓게 보는데 따라 脆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問題에 대해서 學界에 계신 先輩 여러 분께서 많은 指導와 鞭撻이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